

전북·대전 시즌 첫 대결... 초반 판도 가른다

올 시즌 우승후보 꼽히는 양강 내일 한발벌쳐 자존심 건 일전 4경기 만에 첫승... 부진 털기 울산·서울, 안방서 4연승 도전

K-1 주말레이스 전망



우승 후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4경기 만에야 첫 승전고를 울린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 시티즌이 올 시즌 K리그 1 첫 맞대결을 벌인다.

전북과 대전은 21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올 시즌 양강으로 평가받는 두 팀이 정규리그에서 맞붙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전북과 준우승팀 대전은 올 시즌 개막에 앞서 20년 만에 부활한 'K리그 슈퍼컵'에서 이미 힘을 겨뤘었다.

지난달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북이 모파와 티아哥的 득

점을 쥘며 2-0으로 완승했다.

지난해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K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린 전북은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전북의 2연패를 저지할 대항마로는 대전이 첫 손에 꼽힌다.

우승을 다툰 팀 간 대결이라 기선제압이 중요한 한 판이다.

전북과 대전은 공교롭게도 시즌 출발이 뜻한 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K리그1 4경기를 치른 현재 전북은 승점 5(1승 2무 1패), 대전은 승점 6(1승 3무)을 얻는 데 그쳤다.

전북은 슈퍼컵에서는 승리했으나 K리그1에서는 개막전에서 승격팀 부천FC에 충격적인 2-3 역전패를 당하며 김천 상무(1-1), 광주FC(0-0)와 연달아 비긴 뒤 18일 FC안양을 2-1로 눌러 첫 승리를 수확했다.

대전도 슈퍼컵 패배 이후 K리그1에서는 안양, 부천, 김천과 모두 1-1로 비긴 뒤 18일 인천 유나이티드를 3-1로 꺾고 올 시즌 처음 승전기를 불렀다.

지난해까지 김천을 이끈 뒤 올 시즌을 앞두고 전북 지휘봉을 잡은 정정용 감독은 안양전 승리 후 "첫 승리가 이렇게 힘들 줄 생각도 못 했다"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그리고는 "대전이든 우리든, 승리로 기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에서 우승한 전북 현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세가 올라왔다. (슈퍼컵에서) 한 번 대결해 봤으니 잘 준비해 보겠다"면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 쪽 밀고 나가겠다"고 연승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은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전에 지난해 3승 1무의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나란히 3경기씩만 치르기도 전승으로 승점 9를 쌓은 울산 HD와 FC서울은 22일 각각 김천, 광주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4연승에 도전한다.

K리그1 4연패를 노렸던 지난해,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두 번이나 교체하는 등 굴

욕적인 시즌을 보냈던 울산은 구단 레전드인 김현석 감독 체제로 새 출발 한 올해 K리그1 개막에 앞서 치른 2025-2026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당하고 9위에 그쳐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K리그1에서는 매 경기 두 골 이상 터트리며 연승 가도를 달린다.

3경기 연속골 및 시즌 4골을 터트린 야고의 발끝이 무섭다.

김기동 감독 부임 3년 차를 맞아 뭔가 보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일정

21일(토)	대전vs전북	오후 2시(대전월드컵경기장)
22일(일)	울산vs김천	오후 2시(울산문수축구경기장)
	서울vs광주	오후 2시(서울월드컵경기장)
	포항vs부천	오후 4시 30분(포항스틸야드)
	강원vs제주	오후 4시 30분(강릉하이원아레나)
	안양vs인천	오후 4시 30분(안양종합운동장)

여울 때가 된 서울도 인천, 제주, 포항을 연파하고 신바람을 내고 있다.

서울이 정규리그 개막 3연승을 거둔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글·사진·연합뉴스



메시, 통산 900호골 호날두 이어 두 번째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통산 900골을 달성했다.

메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슈빌SC(미국)와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득점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29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1-1로 비겼다.

1, 2차전 합계 1-1로 비긴 인터 마이애미는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8강 진출권을 내슈빌에 내주고 탈락했다.

내슈빌을 상대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메시는 전반 7분 만에 득점포를 터트렸다.

메시는 왼쪽 풀백 세르히오 레길론이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며 크로스를 내주자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를 앞에 놓고 왼발 슈팅으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이번 득점은 메시가 2023년 여름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작성한 81호 골이었다.

더불어 프로 데뷔 이후 통산 900호골이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672골을 넣은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32골, 인터 마이애미에서 81골을 터트렸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115골을 터트려 통산 900호골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메시는 2024년 9월 '900호골'을 가장 먼저 돌파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966골)에 이어 '900호 고지'를 밟은 역대 두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배구 정규리그 MVP '집안싸움'



프로배구 2025-2026 정규리그가 대한항공-현대캐피탈 간 최종전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규리그를 빛낸 최고의 선수 영예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는 취재 기자단 투표로 선정해 통상적으로 페넌트레이스 1위 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규리그 1위 공헌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프로 원년인 2005년부터 직전 2024-2025 시즌까지 21차례 진행된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1위 팀에서 MVP가 나오지 않은 건 남녀부 각각 3차례에 불과했다.

남자부는 2016-2017시즌 문성민(현대캐피탈), 2021-2022시즌 노우모리 케이타(KB손해보험), 2023-2024시즌 OK저축은행 소

속이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현대캐피탈) 3명이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닌 팀에서 MVP로 뽑혔다.

여자부에선 원년인 2005년 정대영(현대건설)에 이어 흥국생명 소속이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2020-2021시즌과 2023-2024 시즌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닌에도 MVP의 주인공이 됐다.

MVP가 정규리그 1위 팀의 '전리품'처럼 여겨진 만큼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대한항공의 베테랑 세터 한 선수와 토종 간판 공격수 정지석 간 '집안싸움' 가능성이 크다.

한선수는 올 시즌 33경기

(124세트)에 나서서 상대 블로커들의 혼을 빼는 컴퓨터 토스와 정교한 볼 배급으로 대한항공이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2-2023시즌 MVP를 차지했던 한선수는 세트 성공 부문에선 6위(세트당 10.5개)로 밀렸지만, 41세의 나이에도 '코트 사령관'으로 대한항공의 공격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선수의 뒤를 이어 올 시즌 대한항공의 주장을 맡은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의 활약도 대단했다. 정지석은 전반기에 외국인 주

포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 정한용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대한항공의 10연승 행진을 이끌었다.

2020-2021시즌 MVP였던 정지석은 올 시즌 27경기에서 434득점(경기당 평균 16.1점), 공격 성공률 53.5%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막판까지 정규리그 1위를 놓고 경쟁했던 현대캐피탈의 레오와 허수봉도 MVP 후보군에는 들어 있다.

레오는 득점 부문 4위(758점)와 공격 종합 1위(성공률 54%), 허수봉은 득점 부문 9위(538점)와 공격 종합 2위(성공률 53.4%)에 각각 랭크됐다.

여자부에선 8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복귀한 한국도로공사의 외국인

男 대한항공 한선수 vs 정지석

女 도로공사 모마·강소희·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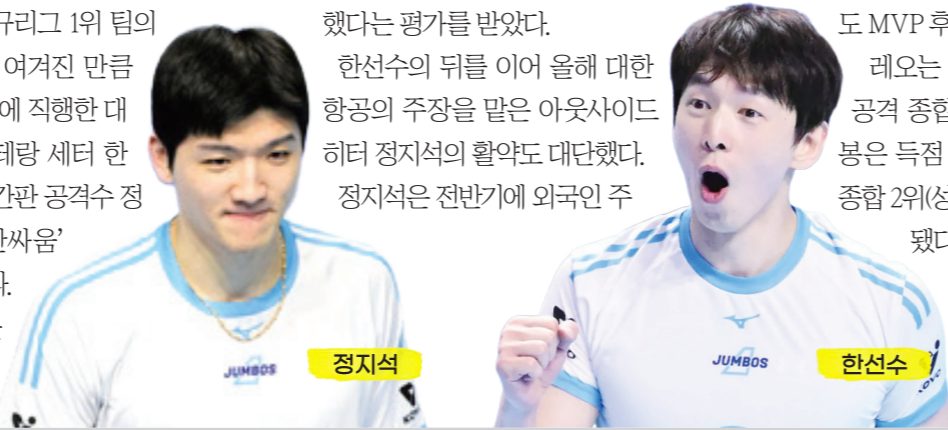
주포 레티차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와 토종 간판 공격수 강소희가 후보로 꼽힌다.

모마는 득점 부문 2위(948점)와 공격 종합 3위(성공률 44.8%)에 올라 있고, 강소희는 31경기에서 421점(경기당 평균 13.6점)을 자랑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의 봄 배구 진출을 주도한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도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실바는 올 시즌 여자부 한 시즌 득점 신기록인 1083점을 작성하며 남녀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3년 연속 1000득점 대기록을 달성했다.

프로 출범 후 유례없이 뜨거운 중상위권 경쟁이 펼쳐졌던 이번 시즌에 누가 정규리그 MVP 영예를 안을지 주목된다.



정지석

한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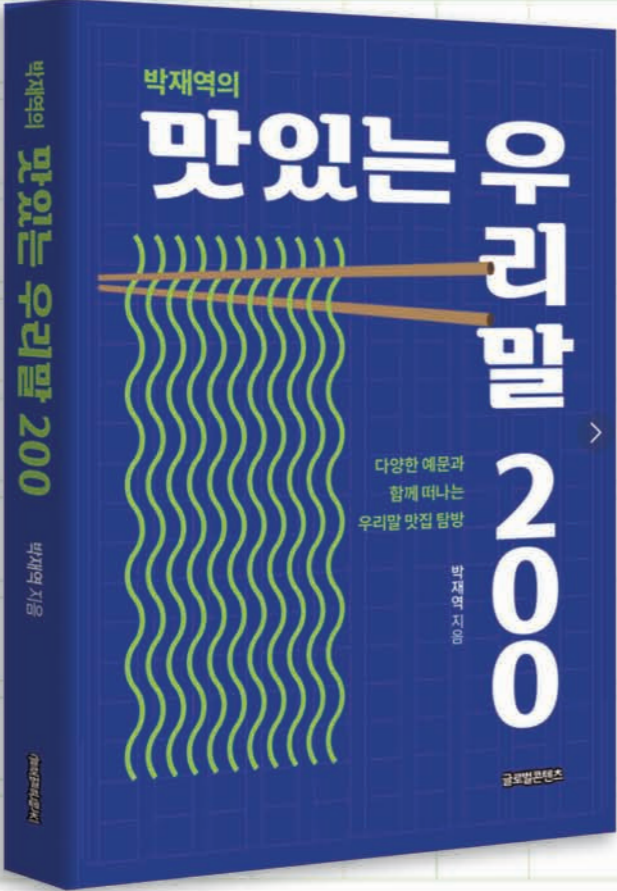
맛있는우리말200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흥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